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30

“우리도 편다”

- 광주시체육회

“올 성공적인 광주체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2007광주전국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다짐하며 달려겠습니다”

오는 10월 8일 광주전국체전 준비로 하루 해가 짧은 광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오는 3월 1일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에 출전, 역대 최고의 체전이 되도록 마음을 가다듬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14년 만에 광주에서 치러지는 전국체전에는 국내·외 3만여명의 선수단이 광주를 방문, 약 4천억원의 경제적인 효과에도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등 효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광주시체육회는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전국체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최지 이점을 안고 종합 4위를 목표로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지원에 하루 해가 짧은 지경이다.

“역대 최고의 체전 되도록 최선을”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체전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를 전국에 알리고, 체육인프라 구성등 여러면에서 광주가 도약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체육회 전 직원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3·1절 전국체전에는 전 직원이 참가해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나무석(72) 상임부회장은 주말 골프 18홀을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녀 동반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체력을 자랑하고 있다. 체육회 직원들은 나 부회장이 10km에 출전해도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귀뜸.

핸드볼 경기인 출신인 전학철(56) 사무처장은 주말이면 무등산 일원을 뒀다들며 체력을 다지고 있다. 50종반을 남긴 나이이지만 아직도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을 자신한다.

박재현(49) 경기팀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물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3·1절 대회를 앞두고 속보코스를 늘리는 등 컨디션 회복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다. 역대 경기인 출신인 노치일(41)팀장은 퇴근 후 테니스와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광주시체육회, 광주상무축구단 직원들. 뒷줄 왼쪽부터 유성훈, 김동석, 장재현, 노치일, 전학철, 박재현, 박희영, 조태현, 정재환, 최민성. 아랫줄 왼쪽부터 문부홍, 홍은주, 진병서, 이한우, 윤성하, 박현덕, 강종원, 이경재. /위쪽기자 jwji@kwangju.co.kr

달리기로 살빼기에 성공해 마라톤 풀코스라 도 될 거세다.

문부홍(40)총무팀장은 400m중거리 육상선수 출신으로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조깅으로 체력다지기에 나섰다. 올 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10km에서 등위안에 끝낼하겠다고 기원.

마라톤 참가로 전직원 화합 결의

홍은주(여·35)주임과 박희영(여·31)씨는 각각 불림과 스퀘시로 건강을 다져왔기 때문에 5km정도는 거뜰히 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막내 박현덕(여·28)씨는 스퀘시와 등산으로 가운 건강미인임을 이번기회에 알리겠다고 버리고 있다. 조태연씨와 정재환씨도 각각 배구동호회와 테니스 클럽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있어 달리기는 기본. 유성훈(29)씨는 불림으로 다져진 체력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치고 있다. 총무팀의 최은기(31)씨는 육상 단거리 선수출신인데다 씨름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대회에서 자신의 기초체력을 보여주겠다고 버리고 있다. 장석재(31)씨도 수영으로 체력을 다져와 5km정도는 가볍게 달릴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박성용(31)씨는 등산매니아로 지구력에 자신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km에 도전한다는 계획.

72세 나무석부회장 “10km 거뜰”

장재현(47)광주 상무축구단 사무국장 겸 축구선수 출신 이한우(40)팀장은 광주상무축구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3위안에는 들지 못하더라도 10위권에 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삼총사 주중 출격



설기현 31일 박지성 1일 이영표 1일

지난 주말 136년 전통의 잉글랜드 FA컵축구대회에서 나란히 소속 팀의 16강 진출에 힘을 보탠 프리미어리그 삼총사가 주중 리그 경기와 칼링컵에 다시 출격한다. 불과 사나흘만에 또 경기가 잡힌 건 주말 FA컵 탓에 리그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긴 침묵을 깨고 70일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설기현(28·레딩FC)은 31일 오전 5시 영국 런던 마데스키스타디움에서 위건 애슬레틱을 상대로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를 맞는다.

상대는 대표팀 후보 이천수(26·울산)가 이적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위건. 리그 17위로 강등권에서 줄타기를 하는 팀이다.

잉글랜드 진출 이후 다섯 번째 ‘골대 불운’에 운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2월1일 오전 5시 골짜기 앞포트를 만난다.

18승3무3패(승점 57)로 선두를 달리는 맨유와 대조적으로 23경기에서 단 2승밖에 올리지 못한 팀이다.

이영표(30·토트넘)도 같은 시간 칼링컵 준결승 2차전을 치러러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향한다. 상대는 아스널.

토트넘은 지난 25일 준결승 1차전에서 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즐리우 발티스타에게 연속골을 내줘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이영표는 이 경기에 결정했지만 주말 FA컵에는 풀타임을 뛰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마테라치 또 박치기 당해

이프로축구서 시비 걸다 턱 받쳐
獨 월드컵 때 ‘지단 사건’과 비슷

지난 해 7월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결승에서 지네타 디안(프랑스·은표)의 박치기에 가슴을 얻어맞았던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34·인터밀란)가 이탈리아 리그 경기에서 또 박치기를 당했다. 29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세리에A) 삼프도리아의 홈구장 스타디오 루이제 페라리스.

전반 7분 삼프도리아의 미드필더 겐나로 델베키오가 인터밀란 골키퍼 즐리우 세자르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자 193cm의 거구 마테라치가 시비를 걸고 나섰다. 그 이후엔 지단의 박치기 사건과 전개 과정이 똑같았다.

지단의 가족을 모욕해 화를 유발했던 것처럼 델베키오에게 뭔가 함담을 했고 설전이 오갔다. 단지 박치기로 가격한 부위만 달랐다. 화가 치민 델베키오는 마테라치의 아래턱을 머리로 들이박았다.

장면을 본 니콜라 리홀리 주심은 가져왔던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델베키오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그라운드를 떠났다.



델베키오(왼쪽)가 마테라치의 턱부위를 머리로 들이박고 있다.

수적 우위를 등에 업은 인터밀란은 스투덴 출신 골키퍼 즐리우 세자르와 브라질 출신 윙백 시세나도 마이론의 연속골로 삼프도리아를 2-0으로 제압했다.

국제고 박세롬 ‘금’

전국태권도 여자부 핀급

박세롬(국제고 2)이 제2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세롬은 29일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핀급 결승전에서 수원정보고 김이슬을 7-6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세롬은 준결승에서 정발고의 정수연을 7-4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국 “많은 골로 팬들에 보답” 어제 출국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호 태극전사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입단에 필요한 절차상 준비를 모두 끝내고 29일 영국으로 건너갔다.

팀 훈련에 합류해 입단을 확정짓고 지난 25일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일시 귀국했던 이동국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등번호 18번을 달게 될 이동국은 팀에 합류하는 대로 30일 공식 입단식을 갖고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동국은 출국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리기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잘하는 게 목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골일 것이다. 가서 많은 골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